

뉴멕시코주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7-8월호
2017년



한인회 이희정 예무단의 부채춤

한인회소식

한인 여러분

문상귀

뉴멕시코 한인회장



뉴멕시코주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에 건강에 어려움 없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한인회는 지난
5월 28일 제17대 한인회장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를 잘 마치고 현재까지 교민분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서 한인회관 단장과 더불어 당면한 행사들을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임원·이사진이 한마음으로
솔선수범하며 열심히 일하심에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의 칭찬에 몸 둘 바를 모르겠고
더욱 열심히 하라는 관심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행사들 가운데 주요한 것은

1. 한인회 어버이회에서 5월 10일(수) 윤태자 수석부회장
자택에서 야외 모임을 가졌습니다.

2017년 7-8월호 내용

표지 | 한인여러분 | 문상귀 : 1

한인회소식 | 어버이회 소식:윤태자/이천도자기 : 3

한국학교소식 | 한국학교 여름캠프 : 4

한국학교소식 | 한국학교소식|박영신 : 5

지역사회소식 | 지역사회 지난소식 : 6-7

지역사회소식 | 노인회고국방문안내/ B&B 베이커리 : 8

수필 | 가장 행복했던 시절 | 이정길 : 9

기행문 | 선교를 향한 마음의 시작 | 이혜리 : 10

생활상식 | 회의법 | 김기천 : 11

생활상식 | 행복한 미국생활 #13 (노인주택보조) : 13

수필 | 큰 기적 아니면 기막힌 우연? | 김준호 : 15

지역사회소식 | 아시안페어의 채소전 : 16

성경공부 시리즈 #5 | 에베소서 4장 | 현용규 : 17

성경강해 | 영원한 안식일(레위기) | 이명길 : 19

광고 | 뉴멕시코주 한인교회 안내 : 23

광고 | 뉴멕시코주 한인업소 : 24

문상귀 한인회장 인사 (1면에서 계속)

2. 5월 14일 일요일 오후 5시 윤태자 수석 부회장 자택에서 임원 이사 상견례 시간을 가졌습니다.

3. 아시안 축제가 5월 21일에 있었습니다. 이희정 예술분과 위원장의 장구춤 공연과 단원들의 부채춤 공연이 있었습니다.

4. 김진욱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인회 임원들이 한인회관 지붕 공사와 간판, 주방 싱크대와 스토브 수리, 병충해 방제, 선반 설치 등으로 새 단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5. 마이클 한 웹 마스터가 웹사이트 단장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서슴치 마시고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6. 5월 28일에는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정기총회를 다시 개최해 정관수정을 했습니다. 또한, 이날 이.취임식을 통해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박균희 이사장,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국승구 수석부회장, 미주 한인재단 김활란 고문, S.K. 김창호 대표이사, 박순삼, 신광순, 정풍자 전 한인회장, 차성희 이사, 코윈 오렌지 카운티 김복순, 한백회 안상준 회장, 임경해 교민, 등으로부터 총 6,000불의 발전기금이 모였습니다.

7. 사무라이 식당을 운영하시는 박찬영 사무총장님이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는 '2017 한인회 사무국장 연수'에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참가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뉴멕시코 한인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사무국장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연수에 참여하게 돼 우리 한인회로서는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8.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6월 28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일정 마지막 날인 7월 1일, 워싱턴DC에서 미주 한인 500여 명을 초청한 동포간담회에 제가 초청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9. 7월 27일 휴전일을 전후해서 민명희 부회장님이 어버이회와 참전용사분들 식사 대접을 하기로 했습니다.

10. 8월 16일 수요일 12시에 한인회관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갖습니다.

이상 행사에 관한 보고를 드렸고 한가지 알릴 말씀은 한인회 홈페이지에 대한 광고 안내입니다. 한인사업체와 한인회의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광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광고 크기와 위치,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인회 사이트(KAANM.COM) '광고주 모집'을 클릭하면 크기별로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광고주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교민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평안과 번창을 기원하며 이만 인사를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취임식과/총회에서 기념사진(아래)과 임원소개(위)



Lunch
11:30-2:30 Mon-Sat

Dinner
4:30-9:30 Mon-Thur
11:30-10:00 Fri,Sat
4:00-9:00 Sun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http://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알버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 87505
Tel: 505-988-4476



어버이회 소식



윤태자

뉴멕시코 한인회 수석부회장

새로운 회장단과 함께 4월부터 어버이회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현재 공식인 어버이회 회장은 여러 방법으로 타진 중이며 봉사하시는 임원들과 그 외 여러분께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문상귀 회장님, 윤태자 부회장, 감리교회 여선교회, 정풍자님, 김스 마켓, 차성희님, 마이크 조께서 한주씩 후원해 주셨습니다. 7월에 민명희 부회장님, sushi & sake, 8월에는 한인회 이사회, 이희정님, 주님의 교회, 사무라이 식당, 문상귀 회장님께서 후원해 주십니다. 한인회에 물품을 후원하시는 욕이 씨는 옛날에 이곳에 살았던 정으로 들들 때마다 물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인회나 부속기관인 어버이회, 한글학교가 서로 협조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청소해야 더 깨끗한 환경의 회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스 마켓 김진욱 부회장님이 임원분들과 함께 꾸준히 한인회관 보수와 관리, 청소를 이끌어 가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누구도 구경꾼이 아닌 동참하는 참여의식으로 한인회관을 공유하고픈 마음을 잘 담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까운 피닉스에서 무더위 사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곳 엘버커키도 폭염으로 많은 분이 고생하고 계시지요. 무더운 여름철에 충분한 수면과 수분을 섭취하시면서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매주 수요일에 어버이회에 참석하지 않는 분이 계시면 함께 권하셔서 여름철 별미와 보양식을 함께 나누시고 체력을 잘 관리하셔서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트 산타페와 Folk Art Market에 올해도 이천도자기 참여



Art Santa Fe는 올해 17년째를 맞는 Contemporary Art Show로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산타페 컨벤션 센터(Santa Fe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린다. 세계적 수준의 근현대 예술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다. 지역, 국내 및 국제적인 예술가들과 갤러리의 작품과 선별된 쇼 프로그램, 라이브 공연 및 이벤트를 제공한다. 지역의 뿌리 깊은 문화적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시대를 앞서가는 예술 작품, 영감을 주는 이벤트로 미래 지향을 추구해 전시 참여자들이나 관람객들에게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

오프닝 나이트 파티는 7월 13일 오후 5시에서 9시까지이고 일반인 공개는 7월 14일(금) 오전 11시에서 오후 8시, 7월 15일(토) 오전 11시에서 오후 8시, 7월 16일(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입장료는 2인 전체 관람가 티켓은 100불, 일반 대중 3일권은 25불, 일반 대중 1일권 20불 학생 및 경로 우대 3일권 15불, 학생 및 경로 우대 1일권 10달러이다.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 쇼 기간 중 컨벤션 센터와 인접해 있는 다운타운에 주차할 수 있다.

Folk Art Market은 전 세계의 민속 예술가들과 함께 살아있는 전통을 보존하고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행사이다. 주최 기관인 International Folk Art Alliance는 수공예품의 품위와 인간애를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s
New Mexico Properties

Yong Shin Kim
Associate Broker / REALTOR®
Fluent in English & Korean
Cell: (505) 321-7695
Email: yongfre@yahoo.com
6739 Academy Rd. NE, Suite 200
Albuquerque, NM 87109
Office: (505) 888-1700

A member of the franchise system of BHH Affiliates, LLC. Equal Housing Opportunity.

Mi Kyong Kim
Mortgage Banker
NMLS #512561

BANK OF ALBUQUERQUE
MORTGAGE

3900 Vassar Dr NE
Albuquerque, New Mexico 87107
www.bankofalbuquerque.com/mikyongkim
E-Mail: mkim@bokt.com
Direct: 505.855.0586
Mobile: 505.379.2944
Fax: 505.855.7301



김미경
주택융자
도와드리겠습니다

2017 한국학교 여름 캠프

"나라를 구한 이순신"

뉴멕시코 한국학교에서 “나라를 구한 이순신”이란 주제로 우리아이들의 여름방학의 끝을 즐겁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 간: 2017년 7월 31일 ~ 8월 3일, July 31st thru August 3th 2017
- 시 간: 오전 9:30 ~ 오후 2:30, at 9:30am thru 2:30pm
- 대 상: Pre K to 5th grade
- 내 용: 한글, 한국 문화 체험(요리, 서예 등) 및 Field trip 1회
거북선 만들기 및 이순신 관련 랩북 만들기
자세한 사항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The details may change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 등 록: 뉴멕시코 한국학교
NM Korean Language School
- Contact: 교장 박영신 (505 506 6936)
NMKoreanlanguage@gmail.com
- Tuition: \$60 (Second child is \$45.)

뉴멕시코 한국학교
NM Korean Language School
9607 Menaul Blvd. NE ABQ, NM 87112

아트 산타페 (3면에서 계속)

소중히 여기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문화적 전통을 존중한다. 90여 개 국가 160여 부스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다.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대영)은 올해도 두 가지 행사에 다 참여한다.

이천조합은 이천에서 활동하는 도예가들을 대표하여 다양하면서 우수한 도자기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노력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4명의 도예가가 Art Santa Fe 전시회장에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도자 제작 기법을 시연하는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산타페와 앨버커키 주변에 사는 교민들은 김두남 전 한인회장장과 이윤정 씨를 중심으로 진심이 담긴 그리고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로 이천조합이 산타페에서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큰 힘을 보태고 있다.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Acupuncture & Herbs Pain Clinic
Holistic & Alternative Medicine

장상순 한의원
Dr. Sangsoon Chang
DGM, DSCM, Dipl. OM, Dipl. Ch. Lic.

보통의사 Authorized Providers:
Cigna, Presbyterian, Multiplan, Optum
United healthcare, New Mexico health
connection, Out of net work, Molina.

2617 Juan Tabo NE #B
Albuquerque
New Mexico 87112
www.drchang505.com

505-255-0878
505-710-7504
sangsoonc@gmail.com

한국학교소식

한국학교소식

안녕하세요, 뉴멕시코 교민 여러분. 한국학교 교장, 박영신입니다.

무더운 여름의 시작과 함께, 한국학교의 모든 정규 수업은 마무리되었고 새해에 계획했던 여름학기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6월 초에 시작한 '성인반 여름 집중수업'은 짧은 시간의 홍보와 처음이라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다행히 많은 학생들이 등록하였습니다. 학기 중에는 바쁜 2세 자녀들이 자신의 모국어를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 수업에 참여하고 또 K-pop에 관심있는 미국 청소년들이 이번에 많이 등록했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여름학기 수업이 다음학기 수업으로, 한국어 수업이 한국에 대한 연결고리와 관심이 되길 바라며 이 자리를 빌어 여름학기 집중수업을 위해 본인의 휴식을 내려놓고 모든 수업 준비를 도맡으신 김소운 선생님께 감사 드립니다.

8월에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캠프가 있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되는 이 캠프에서는 '나라를 구한 이순신'이

박영신
한국학교 교장



라는 주제로, 왜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순신 장군의 일생과 거북선, 난중일기 등에 대해 배우려고 합니다. 한글수업에 국한하지 않고 겨울방학 때 진행했던 랍복 만들기과 특별활동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리라 확신하며 더불어 민족의 우수성과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한민회 윤태자 수석 부회장님 댁에서 아이들과 여름에 관련된 놀이와 간식 만들기 등의 즐거운 야외활동도 있으니 Pre-K에서 5학년까지의 자녀를 두신 많은 교민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진 1. 여름특강 수업 중



사진 2. 모음체조(모음을 몸으로 만들어보는 체조)



Japanese Kitchen
제페니즈 키친

일본인이경영하는 일식 정통집

일본 정식 (5코스:30불, 6코스:40불, 8코스:50불)
모듬정식(벤토), 해물우동, 튀김 우동,
닭고기정식, 고등어정식, 콩치정식, 연어정식
그외 일본 정통음식
(대만) 야끼전문, 고기종류와 해물 외 다수

www.japanesekitchen.com
Phone: (505)884-8937, (505)872-1166
6521 Americas Parkway NE ABQ

Japanese Kitchen
Sushi & Japanese Cuisine

6511 Americas Parkway NE
Albuquerque NM 87110

Phone: 872-1166
Fax: 884-8938
www.japanesekitchen.com

5월10일 한인회 어버이회 소풍

5월 10일(수) 어버이회 야유회가 윤태자 수석부회장 자택에서 있었다. 윤태자씨와 어버이회 봉사자 여러분은 50여 명의 어버이회 회원, 한인회 임원, 이사, 한인회 봉사자들을 초대해서 모시고 푸짐한 식사를 대접했다. 민명희 부회장은 어버이들의 가슴에 달 카네이션을 준비해 와 문상귀 회장과 함께 직접 어버이들에게 달아주었다



<통일로 가는길>에 뉴멕시코분회 소개

민주평통 오렌지 샌디에고 협의회에서 2017년 4월 발행한 책자 <통일로 가는 길>에 뉴멕시코 분회가 소개되었다. 동포사회와 한인회, 한국학교, 코원, 평통 자문인 정봉자 씨, 김두남 씨, 조규자 뉴멕시코 분회장, <고향의 봄> 작시 이원수 선생과 <오빠 생각> 최순애 여사의 아들 이경화 장로와 <광야의 소리>, 2015년 10월에 있었던 권석대 회장의 통일 강연과 동포간담회, 조규자 뉴멕시코 분회장에게 감사장 전달, 평통 주최 한국학교 어린이 백일장 등이 소개되었다. 미주 평통 현 뉴멕시코 분회장은 전 한인회장이었던 조규자 씨가 맡고 있다. (출처: 아리조나타임즈5-24-16)



5월21일 아시안 문화축제

5월 21일 주말에 열린 아시안 축제에 한인회 예무단이 장구춤과 부채춤을 선보였다.



왼쪽에서부터:윤진옥,이영혜,박애나,문상귀(한인회장),유남이, 김옥선,이희정(무용단장)



이희정(무용단장)씨의 장구춤

샌디아연구소 좋은 직장 랭킹 20위

샌디아국립연구소가 Forbes 에서 선정하는 일하기 좋은 직장 랭킹 20위에 올랐다. 좋은 직장으로 알려져 있던 NASA, Disney, Microsoft를 앞질렀다. 설문조사는 미국내 5,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500개 회사를 대상으로 5만명의 직원들을 통한 설문 조사로 얻은 결과라고 한다. 앨버커키에 있는 샌디아국립연구소는 현재 10,600명의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랭킹1은 Costco Wholesale Corp.이 차지했고 2위는 Google이 됐다. NASA의 랭킹은 37위, Microsoft Corp.은 50위를 얻었다.



뉴멕시코 지역사회 지난소식 (5월-6월)

산타페 한인교회 춘계부흥 사경회



산타페 한인교회에서는 지난 6월 3일-4일 LA 선한청지기 담임이신 송병주 목사님을 모시고 춘계부흥사경회를 열었다. 첫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세미나 방식의 집회에는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에서 여러분이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눴다. 첫날 세미나는 최근 미주복음방송에서 연속강의하셨던 내용을 현지교인에 맞추어 강의방식으로 진행하셨으며, 우리의 세계관이 기독교적인었는지 생각하고 반성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둘째날은 창세기 38장 본문으로 전해주시는 말씀 통해 오늘 나의 상처와 어려움은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놀라운 도구임을 전하셨는데,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때 그분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는 메시지에 많은 성도들이 큰 은혜를 체험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부모들이 눈물 흘리며 예배당을 나와 그 이유를 많이 궁금해 했다.

전종범 선교사 따님의 박사학위 취득

뉴멕시코 shiprock(Shiprock), 파밍턴 (Farmington)지역 나바호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여생을 바치고 있는 전종범 선교사의 따님 전혜인(Sharon Jun) 씨가 플로리다주립대학에서 지난 5월 교육공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자료출처: Facebook.com/voiceofnm)

UNM 서점에 여권 센터 개관



뉴멕시코 대학 서점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보다 손쉽게 여권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뉴멕시코 대학 글로벌 교육 사무소 (Global Education Office)와 UNM 서점은 5월 5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서 3시까지 메인 캠퍼스 서점에서 새 여권 센터 개관 축하식을 가졌다. 국무부가 공식 여권 수락 편의 시설로 UNM을 정함에 따라 가까운 거리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UNM 서점의 편의 시설인 Satellite 커피점, 테크놀로지 센터 및 La Montanita Co-op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UNM 여권 센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약이나 혹은 예약없이도 친절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약 전화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접수한다. (505) 697-0110으로 전화하거나 이메일 passport@unm.edu로 연락하면 된다.

UNM의 Passport Center는 정해진 미 국무부 가격 지침을 모두 준수한다. UNM의 센터를 통해 새로운 미국 여권을 얻는 데 추가 비용은 없다. UNM 여권 센터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UNM 여권 사무소 웹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passport.unm.edu>, 주소는 2301 Central Ave NE, Albuquerque, New Mexico 87131이다.

(자료 출처: 아리조나타임즈5-24-16)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www.abqsushiandsake.com

Lunch
11:30-2:30 Mon-Sat

Dinner
5:00-9:30 Mon-Thur
5:00-10:00 Fri-Sat
12:30-8:00 Sunday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l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대한 노인회 주최 고국방문 안내 광고



대한 노인회 미주 총연합회 제9차 고국방문 행사안내

1. 기간 : 2017.9.21-9.29.(8박9일, 기내 1박 포함)
●홍콩/마카오 3 박 4일 참가자는 2017.9.18-9.29 (10박 11일)
2. 출발지별 참가비: 아래 요금표 참조
3. 예약/등록 수속: 삼호관광 (주) 에 일괄 위탁
전화: (213)-427-5500 Fax:213) 427-5535,
담당자: Jenny Ahn
4. 고국방문 2일제 만찬은 제9회 대한노인회미주총연 정기총회로 진행됨.
5. 세부 사항은 미주총연합회 웹사이트
www.korusworld.org 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제 9 차 고국방문 출발지별 요금

1. 출발공항별 요금표

출발공항	고국관광	고국+홍콩(옵션)	비 고
LAX, CA	\$2,419	\$2,699	
San Francisco, CA	\$2,269	\$2,699	
Seattle, WA	\$2,449	\$2,879	인천 1박 포함
Houston, TX	\$2,739	\$2,789	인천 1박 포함
Dallas, TX	\$2,869	\$3,249	인천 1박 포함
Denver, CO	\$2,679	\$3,219	
San Antonio, TX	\$2,689	\$3,109	인천 1박 포함
Kansas City, MO	\$2,769	\$3,289	인천 1박 포함
Omaha, NE	\$2,739	\$3,229	인천 1박 포함
Atlanta, GA	\$2,849	\$3,239	인천 1박 포함
JFK, NY	\$2,589	\$2,809	
Philadelphia, PA	\$2,579	\$2,889	인천 1박 포함
Washington D.C.	\$2,699	\$3,229	인천 1박 포함
Honolulu, HI	\$2,309	\$2,799	인천 1박 포함
기타 지역	별도문의	별도문의	

한인이 운영하는 B&B 베이커리개업

산타페 지역에 한인 빵집이 오픈한다. 올해 1월 캘리포니아에서 산타페로 이사온 양성권, 양현숙 씨가 그 주인공이다. 양성권씨는 미국 대륙횡단여행중에 로스알라모스와 산타페에 방문해보고 이곳에 비즈니스를 오픈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자연을 좋아하는 심성이기에 이곳 산타페의 아름다운 자연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고 한다. 슬하에 8살 아들과 7살 딸을 두고있으며 로스 알라모스에 있는 Mountain Elementary School 에 재학중이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다고한다.



양성권씨는 20여년 경력의 제빵 전문가로 한국에서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유명제과점인 김영모 베이커리에서 제빵기술을 익혔고 2005년 도미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Eat Cake Cafe 에서 Head Chef 로 근무했었다.

이번에 오픈하는 베이커리의 모토는 '건강을 생각하는 빵집'이다. 모든 빵과 케이크에 Cage Free Egg 를 사용하고, 맛있는 글루텐 프리 케이크와 친 환경 밀가루를 사용한 빵을 만들어 건강을 생각하는 고객들에게 맛있는 디저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식 빵으로는 우유식빵, 깨찰빵, 모카빵을 계획하고 있으며, 음료는 커피와 티, 핫초콜렛, 레몬에이드 등이 있을것이라 한다

지역사회에 한인이 운영하는 제과점이 생겨서 모두들 크게 환영하고 있다. 제과점 위치는 산타페의 문화의 전당이라 할수 있는 랜식음악회관(극장) Lansic Performing Art Center동편쪽 옆길에 있다. 전화:213-369-1604

주소: 38 Burro Alley, Santa fe, NM 87501



가장 행복했던 시절

걷기에 대한 나의 열정은 어렸을 때 생겨났다. 심심하면 넓은 들판의 길을 마구 쏘다니며 놀았다. 혼자서 돌아다니다 눈에 띄는 것이 있으면 보고 만지는 맛을 무엇에 비하랴. 여름비 내리는 날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걸었고, 겨울에는 눈 위에 최초의 발자국을 남기는 재미로 걸었다. 그 배회가 풀 나무 꽃 구름 바람 새 잡자리 물고기 개구리 따위와 친구할 수 있게 해주었다. 자연과 하나 되어 자연을 마음껏 즐긴, 내 평생 가장 행복했던 때. 내 인생은 좁은 논두렁길에서 시작되었다.

걷기는 나중에 등산으로 이어졌다. 산은 언제나 나를 완전 무결한 자연 속으로 깊이 끌어들여 그 오묘함을 오감으로 느끼게 해주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산들은 여러 번 올랐고, 설악산과 오대산으로부터 한라산까지 이름 난 산은 거의 다 찾아가 보았다. 번번이 피곤해져도, 하산하여 조금 쉬고 나면 곧 원기를 회복하게 해주는 것이 산행이다. 산마다 다른 풍경에 마음을 빼앗기고, 책에서나 접했던 이름 난 절 마당에 서서는 깊은 감회에 젖었다. 산에 가지 못한 주말은 주말 같지 않던 때였다. 내집 같은 무등산은 무더운 여름날 아침 일찍 올라가 소나무 밑에 자리하고 앉아 더위를 피하는 곳이었다. 소나기가 한줄금 쏟아진 다음 매미들의 힘찬 합창을 들으며, 녀석들도 나만큼 맑고 시원한 공기를 좋아하는구나 했던 기억이 난다.

커다란 샌디아 산 아래 자리한 앨버커키 아카데미는 중, 고등학교 7년 과정을 가진 명문 사립 학교다. 교문 세 개에, 울타리를 따라 한 바퀴 돌면 4.8킬로미터다. 건물들은 가운데 쬼에 모여 있고, 대부분의 땅은 고지 사막답게 선인장 세이즈브러시 텃밭위드 따위의 잡초만 무성하다. 그 땅에는 메뚜기 코요테 로드런너 구렁이 등 여러 가지 동물들이 살고 있고, 별새들도 사월 중순에 찾아와 다섯 달 머물다 떠난다. 누군가 닭 한 쌍을 풀어놓아 새벽에 닭울음 소리를 듣던 때도 있었다.

공연 예술을 위해 마련된 커다란 극장에서는 유명 인사를 초청하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회가 종종 열린다. 수많은 운동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철따라 각종 뉴멕시코 결승전도 개최된다. 육상 경기장은 럭비 경기장으로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았고, 경기장 주변의 넓고 푸른 잔디밭에서는 토끼들이 뛰논다. 축구장, 농구코트는 물론 실내 수영장이며 열여섯 면을 가진 정구장도 있다. 쓰고 버리는 물을 모아 넓은 잔디밭을 가꾸는 학교다.

태양 광선 발전 장치가 한쪽을 넓게 차지하고 있다. 사람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울타리 곳곳을 뚫어 놓아, 사용하지 않는 넓은 땅은 여가를 활용하는 시민들의 공간이다. 잘 닦아진 크로스컨트리 코스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산책로가 사통오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울타리를 따라 밖에서 걷지만, 건물에서 먼 구내의 소로들은 자동차의 소음에서 해방되어 야외 풍경을 즐길 수 있게 해주어 한가하게 걷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한다.

정년 퇴직하면 대자연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여유롭고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자고 마음 먹었던 내 꿈을,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앨버커키 아카데미가 실현시켜준다. 사람의 행동 범위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좁아지는 것이라 퇴직 후에는 현저하게 좁아지고, 나 같은 이방인에게는 그 현상이 더욱 극심하게 나타난다. 고회를 훌쩍 넘긴 나이에다 오랜 습관이 자연스레 나를 산책으로 이끌었다. 인간에게는 적소가 있고, 주위의 자연과 어울려 조화롭게 살면 그곳이 바로 적소라지 않던가. 산책 길은 나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길이다.

아무 것도 안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일이 걷기라지만, 사람들은 사회 밖으로 나가 자연 안에 존재하려고 걷기도 한다. 걷기의 일종인 산책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머무는 것, 느리고 품위 있게 걸으면 사교에도 제격이다. 한가로운 기분으로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즐길 수 있는 것은, 자유로운 시간이 있고 갈 곳이 있으며 병이 없는 육체도 있다는 증거다.

남아도는 시간과 천혜의 요양소라고 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걷지 않고는 하루도 못 배기게 한다. 걸음걸이의 흔들림 속에서 육체와 정신이 주변의 자연 환경과 혼연 일체가 되는 것을 느끼면, 어머니가 손수 짠 베로 지은 새옷을 입고 하루가 멀게 흠을 묻혀 들어오고는 하던 행복했던 어린 시절이 저절로 떠오른다. 고독한 산책도 즐기고, 천천히 걸으면서 명상에도 잠겨 본다.



선교를 향한 마음의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혜리

앨버커키연합감리교회
성가대원

오전 5시 15분, 아직 아침 해가 채 다 올라오기 전 조용히 어린 아이 둘을 깨운다. 아이들은 조금은 잠을 다시 청하고픈 마음을 감추며 들뜬 마음으로 세면대로 향한다. 오늘은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남선교회에서 연초부터 준비 한 나바호 인디언 선교지를 방문하는 날이다. 며칠 전부터 다시금 쌀쌀해진 앨버커키 날씨에 오늘은 비까지 조금씩 더한다. 교회로 향하는 길에 오늘도 어김없이 샌디아 산 위에는 유난히 반짝이는 새벽이 잘 다녀오라며 인사를 전해 준다. 한 아이는 예수님 별이라며 또 한 아이는 위성이라며 이름을 붙인다. 새벽예배를 마친 후, 교우 25분과 함께 파밍턴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아이들은 여선교회에서 이른 새벽부터 사랑으로 준비해 주신 주먹밥을 하나씩 들고는 세상을 다 가진 마냥 행복하다. 3시간 가량 달린 버스는 파밍턴 Ojo Amarillo United Methodist Church에 도착했다. 현지 교인들의 따뜻한 미소와 인사가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다시금 피부로 느끼게 한다. 이어, 현지교회 Frank Hanagame 목사님의 나바호 인디언 선교 현황과 교회 역사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되었다. 그 후, 우리는 다시금 버스에 몸을 싣고 전종범 선교사님의 사역지 방문을 위하여 쉽락으로 이동하였다. 쇼핑센터 주차장으로 버스가 들어서자 전 선교사님과 나바호 교인들의 모습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주차를 하니 전 선교사님의 찬양 소리가 주차장을 메워 쏜다. 다소 생소한 언어로 드리는 찬양은 알고 보니 나바호 고유 언어였다. 버스에서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홈리스 인디언 한 사람이 꾸벅꾸벅 버스로 향해 걸어 오며 며칠을 먹지 못했라며 음식을 나눠 달란다. 바라보니 눈에 맑은 초점을 찾을 수가 없다. 손에 잡히는 대로 간식으로 가져간 바나나와 삶은 달걀 등을 나눠 주며 시린 마음 한쪽을 붙잡는다. 아이들 손을 잡고 전 선교사님께로 향한다. 나바호언어로 찬양을 드리는 전 선교사님의 찬양지에는 나바호 언어로 번역된 한글로 빼곡하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못함이 그 민족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함에 전혀 벽이 될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의 마음에 그들을 향한 간절함과 참사랑이 그 찬양지 한 면으로 전해졌다. 함께 한 교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이끄심으로 홈리스 인디언들에게 향했다. 축복한다는

말과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말로 인사를 전하시는 교우들과 그들의 걸모습과는 관계없이 아이들이 그들을 향해 거침없이 다가가는 순수한 모습을 통해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랑을 가득 품고 살고 있다며 내 속의 착한 성령님이 나의 달란트라 자신했던 나는 선뜻 다가서지 못하는 나 자신과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걱정하는 모습이 너무도 부끄러웠다. 선교단체에서 준비한 음식을 전해 받은 인디언들은 놀랍게도 그 자리를 바로 뜨지 않고 한승우 전도사님의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평안에 대한 메시지를 경청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우들은 한마음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차량으로 돌아가 간식들로 챙겨 온 음식들을 한 끼라도 해결할 수 있길 바라며 인디언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바라며 따뜻한 포옹으로 그들을 배웅했다. 선교지 방문을 마친 후, 교인들과 함께 다시 Ojo 교회로 돌아와 정성스레 준비해 주신 나바호 전통 타코를 대접받았다 '예수 사랑하심' 찬양을 먼저는 영어로 나바호어로 마지막은 한국어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시금 언어는 다르지만,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임에 은혜의 눈물이 났다. 전교인이 준비해 주신 의류들과 남선교회에서



준비한 선교헌금을 나누며 나바호 인디언 선교에 도움이 되길 기도했다.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에게 오늘 선교지를 다녀오며 무엇을 느꼈어 라고 물었다. 9살 인 큰 아이는 그동안 작게 크게 자신의 상황에 불평불만 한 것이 부끄러웠다고 이제는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하였고, 5살 난 작은 아이는 그들이 불쌍하다며 자기는 집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 감사하다 하였다. 조심스레 나에게도 물어본다. 너는 어떤 마음을 품고 돌아왔냐고... 많은 생각이 겹쳐 지나간다. 잃은 양 하나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처럼 시작은 비록 작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기도로 자리한 곳에서 선교를 향한 마음의 시작종을 울려 본다.

회의법: 왜 회의를 하는데 질서가 필요한가?



김기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뜻이 같고 목적이 같으면 사람들은 함께 모임을 만든다. 모임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면 하나의 단체가 된다. 단체는 목적이나 목표를 효율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임원을 선출하고 단체장 곧 회장을 선출한다. 이 단체는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임원이나 또는 회원들과 함께 하는 회의를 열게 된다. 회의는 단순히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결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회원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회원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기에 단체 운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체를 운영하는 데에 회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의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회의법은 회의를 질서있게 운영하는 방법이다. 회의를 하는데 질서가 없으면 시장바닥처럼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다. 누구든지 어느 단체에 속해있다면 기본적인 회의법을 알고 있는 것이 좋다. 특히 교회에 교인이라면 남선교회 또는 여선교회 등 여러 부속 단체에 소속하게 된다. 이런 단체에 소속된 임원 또는 회원이라면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회의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의 순서는 1. 회장의 개회선언 - 2. 서기의 출석점검 - 3. 서기의 전 회의록 낭독 - 4. 회장이 인도하는 안건 상정 - 5. 각 임원들에 의한 보고와 결정 - 6. 회장이 인도하는 기타 토의 - 7. 폐회 순서로 끝을 맺는다.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회장은 이 가운데 순서를 생략할 수도 있다.

한국 사람들이 회의에서 혼동하는 용어가 «동의»라는 말이다. 일상생활에서는 «당신이란 뜻이 같습니다»라고 할 때 «동의합니다»라고 한다. 그러나 회의에서 사용하는 «동의(Move)»라는 말은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의견을 냅니다» 또는 «의견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 «동의»란 단어를 사용한다. 처음 의견을 발표하는 사람이 손을 들어 «회장! 동의가 있습니다.»라고 회장에게 의견을 발표할 권리를 요청한다. 회장이 허락하면 그 회원은 예를 들면 “차를 한 대 구입합니다”라며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다. 그러면 회장은 «차를 한 대 구입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라며 의견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그리고 나서 회장은 «재청(Second)있습니까?»라고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다. 그러면 제기된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은 손을 들면서 «재청합니다»라고 답한다. 여기서 “재청합니다»라는 말은 «방금 제시한 의견에 찬성합니다»라는 말과 같다. 만일 재청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차를 한 대 구입하자는 안건은 더 이상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그 의견은 없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동의와 재청을 거치는 모든 안건은 회의 논의의 대상이 된다.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한 후에 회장은 적절한 시기에 무기명 투표나 거수로 회원들의 찬성과

반대를 묻는다. 대다수가 찬성할 경우에 그 안건은 그 단체에서 결정된 사항이 된다.

회의 순서

1. 개회선언: 회장이 “...월 ...일 회의를 시작합니다”라고 선포하면서 회의가 시작됨을 알린다. 지금부터 모든 내용은 서기에 의해서 기록되어야 한다. 만일 서기가 없다면 회장은 그 자리에서 서기를 임명하던지 선출해야 한다. 서기는 회의록을 기록할 때에 누가 의견을 발표했는지 누가 재청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면 좋다. 결정할 때는 몇명이 찬성하고 몇명이 반대 또는 기권했는지 기록해야 한다.
2. 회원점검: 서기가 출석 인원을 점검한 후에 “전체 회원 수가 ...명인데 현재 참석 회원이 ...명입니다”라며 회의에 참석한 회원 수를 알린다. 서기가 출석 인원을 파악할 때 전체 인원이 소수이면 출석부를 부를 수도 있고 전체 회원 수가 많을 경우에는 서기가 일어나서 참석 인원 숫자를 셀 수 있다. 서기가 출석을 점검하는 이유는 회의를 통해서 안건을 결정하려면 최소한의 필요한 숫자의 회원들이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은 회원으로 등록된 숫자의 반이상이나 3분의 2이상의 회원들이 참석할 경우 회의를 열어 안건을 결정할 수가 있다. 회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회원 숫자를 회의 정족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각 단체가 정관 또는 회칙에 기록하고 있다. 서기가 출석점검을 통하여 “과반수 이상 또는 3분의 2이상 회원이 참석했습니다”라고 보고하면 회장은 “회의 정족수가 되었기에 회의를 진행합니다”라고 하면 된다.
3. 전 회의록 낭독: 서기가 이전에 기록한 회의록을 낭독하는 순서이다. 서기가 이전 회의 때에 기록했던 내용을 낭독하는 이유는 이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그대로 실행되었는지 점검하고 또한 이전 회의에서 나왔던 의견들로 본 회의에서 다시 계속해서 논의해야 될 것이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4. 안건상정: 서기의 회의록 낭독이 끝나면 회장의 주도하에 이전 회의에서 결정된 것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또한 본 회의에게 계속 논의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서 회장이 새로 논의할 계획이나 안건들을 회의에 상정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묻고 결정한다. 보통 안건을 결정할 경우에는 참석한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거나 아니면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이 숫자 또한 회칙(=정관)에 기록해 놓는다. 여기서 회장이 상정하는 안건들은 임원 보고와는 관련이 없는 것들로 한다.

5. 임원 보고: 단체가 크면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만든다. 그리고 각 부서를 담당한 임원들을 선출한다. 정기 회의 때에 각 임원들은 자신들의 활동 사항과 계획을 보고하고 회원들의 인준을 받는다. 즉 각 부서에서 제기한 안건이나 계획들을 회의를 통하여 다수의 회원들이 찬성하여 결정하면 그 결정은 그 단체 전체의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 순서 역시 임원이 보고하고 보고가 끝나면 회장이 회의를 인도하면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다.
6. 기타 토의: 앞에서 상정된 안건이 아닌 다른 의견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순서이다. 회장은 “기타 토의 사항 있습니까?”라며 회원들에게 의견을 묻는다.
7. 회의록 낭독: 기타 토의 사항이 없으면 회장은 서기에게 “서기는 본 회의록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한다. 그러면 서기는 본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낭독하고 회원들의 인준을 받는다. 회의록을 낭독하는 이유는 서기가 회의록을 잘못 기록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다. 회의록을 낭독한 후에 별 다른 의견이 없으면 회장은 “본 회의록을 그대로 받기로 찬성하시면 ‘예’라고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묻는다.
8. 폐회 동의: 회장은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폐회를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한다. 회원들 가운데 한 명이 “폐회를 동의합니다”라고 하고 다른 회원이 “재청합니다”라고 하면 폐회하자는 안건이 성립된다.
9. 폐회 선언: 회장은 “폐회를 찬성하시면 ‘예’라고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다. 대다수가 “예”라고 대답하면 회장은 “폐회를 선언합니다”라면 회의를 마친다.

회의 방법

1. 의견을 발표하는 사람은 “동의가 있습니다”라며 손을 들어 회장으로 부터 발표할 기회를 얻는다. 여기서 “동의”라는 것은 의견을 발동한다는 의미이지 같은 의견이란 말이 아니다. 발표하는 사람은 본인의 이름을 밝힌다. 서기가 회의록에 기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2. 동의안이 상정되면 회장은 회원 가운데 재청이 있는지 묻는다. 그러면 회원 가운데 상정 동의안에 찬성하면 손을 들어 “재청합니다.”라고 알린다. 서기는 재청한 사람이 누구지 파악하여 회의록에 기록한다. 재청이 없으면 제안한 동의안은 무효가 되어 더이상 논의하지 않는다.
3. 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은 이미 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기에 재청을 받지 않고 아래 과정을 거쳐 임원회 안건을 받아들일 것인지 찬반으로 결정한다. 상정된 안건을 가지고 반대 의견 3과 찬성의견 3을 들어본 후에 투표로 결정한다.
4. 처음 발표한 의견(=동의안)에 내용을 고쳐서 발표하면 “수정 동의”이 된다. 회장은 수정동의 경우에도 재청을 받고 수정동의로 받아들인다.
5. 수정동의에 반대 의견을 듣는다.
6. 결의할 때에는 일어서거나 거수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나누어주어 무기명 투표로 한다. 모두가 찬성하는 분위기이면 회장은 “예, 아니오”로 묻는다.
7. 처음에 발표한 의견 즉 동의를 “원안”이라고 한다. 회장은 원안과 수정안을 투표에 붙여 찬반을 결정한다.

회의 태도

1. 회의에 참석한 모든 회원들은 회의를 인도하는 회장의 진행을 따라야 한다.
2. 모든 회원은 의견을 발표할 때 손을 들어서 회장의 허락을 받는다.
3. 회장의 허락이 없이 무조건 일어나서 발표하는 결례를 범하지 않는다.
4. 회장은 손을 먼저 든 사람 순서로 의견을 발표하도록 지명한다.

10 Ground Rules for Meetings

1 Show up on time and come prepared

2 Stay mentally and physically present

3 Contribute to meeting goals

4 Let everyone participate

5 Listen with an open mind

6 Think before speaking

7 Stay on point and on time

8 Attack the problem, not the person

9 Close decisions and identify action items

10 Record outcomes and follow up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출판한 '견우와 직녀의 행복한 미국생활(부제:미주 생활 가이드북)'은 재미 동포에게 필요한 이민, 교육, 의료, 연금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본지는 연속 시리즈로 가이드북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4년 일리노이주에서 출판된 자료임으로 2017년 뉴멕시코에서는 맞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편집부)

2-5 노인 주택 보조 (Senior Housing)

너희들의 바깥활동이 활발하지 않을 터이니 한번 생각해 보았다.”



최심청씨는 저녁에 친구들과 만나고 귀가한 김길동씨에게 항상 생각해왔던 노인 아파트에 관한 계획을 같이 상의해보기로 마음 먹었다.

“영감, 이제 우리도 노인 아파트로 나가서 사는 것이 어때요? 콩쥐랑 팔쥐도 모두 몇 년 안에 대학에 간다고 하여 집을 떠날테고, 애들 두 부부는 세탁소 운영하느라 아침 새벽부터 나가 밤이 되어야 들어오니, 우리가 집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애들이 밖에 있어도 맘이 편치않을것 같아서요.”

길동씨도 마침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던 차라, 심청씨의 질문이 내심 반가워서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교회에서 인근 노인아파트에 사는 교우가 그곳으로 이사나오라고 하더군요만, 노인들이 살기에는 여러모로 편리한 부분이 많다고 하면서, 나도 귀가 솔깃해지더군요. 그분이 그러기를 가고자 하는 아파트에 신청해 놓고 2, 3년은 대기자로 기다려야 한다니까, 미리 신청은 해 놓을 수 있겠지. 그럼 오늘 저녁에 직녀 내외가 집에 들어오면 의논해 보도록 하자고. 그아이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 보기도 하고 말이야.”

늦은 저녁이 되어서 딸과 사위인 직녀와 견우가 모여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을 때, 길동씨가 잠시 헛기침을 하고나서 직녀에게 말했다. “너희 엄마와 내가 노인아파트로 나가서 살았으면 하는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구나. 콩쥐 팔쥐도 다 커서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우리가 집안 일 도와줄 것들도 없어질테고, 너희들도 우리가 집에 만 있다고 생각하면

견우는 길동씨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말했다. “저희들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세탁소에서 일해야 했는데, 그동안 아버지 어머니가 댁에 계셔서 이만큼 이나마 우리 콩쥐와 팔쥐가 잘 자랄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저희가 챙겨야 하는 집안 살림까지 도맡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만큼이나 이곳, 미국땅에서 자리잡을 수 있었구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한인들 신문이나 티브이 뉴스를 보면서, 노인 아파트에서 사는 분들의 활동이 자주 소개가 되는 것을 보았어요. 같은 나이대의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재이있게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직녀가 남편의 말에 이어서 말했다. “정말 어머니, 아버지 고마웠어요. 두분이 이사 나가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슬퍼지지만, 저희와 사시면서 저희들 뒷바라지만 하시는 것 보다는, 남은 여생 동안 같은 연배의 친구분들과 좀 더 재미있고, 활기차게 사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노인 아파트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이곳에 있는 여러 한인 단체로 부터나, 교회에서 뵈는 노인 아파트 거주자 분들에게 알아보겠어요. 아파트 세는 얼마나 내시는지, 생활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등등을 알아봐야겠어요. 또 지내시다가 불편하시거나 힘드시면 다시 저희들과 같이 사시면 되니까요.”

전문가의 한마디

시니어 하우스

1. 섹션 8,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

섹션8에 해당하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란, 연방정부 산하의 HUD(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가 관리하는 것과 각 도시의 시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카고를 예를 들자면, CHA(Chicago Housing Authority) 에서 관리하는 주거형태로써, 연장자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아파트와 더 넓게는 저소득 가정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그 가정의 소득에 기준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서 저소득의 범위란,

매년 4월에 연방정부에서 발표하는 빈곤선 (FPL; Federal Poverty Line)이 기준으로 각 아파트마다 약간씩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입주자격으로는 각 가정의 연간 수입과 미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서, 장애인으로 판정이 되신 분이나, 62세 이상이신 분들만이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은퇴하신 분들의 수입이라면 본인의 은퇴자금, 정부로부터 받으시는 수입과 개인 수입이 다 포함됩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수입이 없으신 분들도 입주 가능한 곳이 섹션8 정부 보조 아파트입니다.

섹션 8 빌딩의 아파트 렌트비의 계산은, 미국가정의 생활비 예산을 일반적으로 3분의 1을 주거비 지출로 산출하고 있으므로 (일반 가정의 예산에서도 주거비용으로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계몽하고 있음) 섹션8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렌트비도 각 가정의 수입의 3분의 1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같은 사이즈의 동일한 아파트에 살고 있을지라도 입주자들은 아파트 렌트비는 각각 다르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또는 정부로부터 받는 수입이 하나도 없는 가정은 한달에 \$300씩을 지불하며, 자녀나 또는 다른 독지가로 부터 보조를 받는 경우의 아파트 렌트비는 \$100 미만이 되며, 매달 \$1500의 연금을 받는 가정의 렌트비용은 \$500 미만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노인아파트의 특징이라면, 빌딩의 안전을 전담하여 주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는 빌딩메니저가 근무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장애인 및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라는 입주자들의 상황에서 자칫 우울하고 고립될수 있는 주거공간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근무하여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더불어 미국 생활에서의 궁금증 및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2. 노년 중상층을 위한 아파트 (Affordable Senior Housing)

노년 중산층이 부담스러운 주거비 지출로 인해, 저소득층이 되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각 가정의 수입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검토해서 입주 조건이 결정되며, 빌딩 기업가들이 아파트 렌트를 시장 가격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정부로 부터 여러 규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나, 가입 조건들은 각각의 아파트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 항상 원하시는 아파트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기를 권합니다. 시카고에 있는 한 아파트의 예를 들자면, 입주 신청서를 작성하는 날로 지난 1년간 입주자의 명의로 된 집이 없어야 된다는 항목이 있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아파트들은 노년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에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주거 프로그램으로써, 노년층 입주자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프로그램과, 노인성 질환만을 진찰하는 간이 의료시설, 운동 프로그램등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섹션8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관여가 있는 곳이므로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만이 입주가 가능합니다.

3. 고소득층의 노년 주거시설 (Senior Community)

지난 10년간 많은 연구자료에서도 보여주듯이, 노년이란 단어의 의미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힘없고, 나약한 존재로 노년층이 인식되었지만, 1946년에서 1964년에 출생한 베이비 부머 그룹의 부상으로 현재는 노년층이 정치,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는 그룹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는 전쟁 이후의 산업 발달과 함께, 전문인의 교육을 받은 세대이며, 부모 세대로 부터의 정신적,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파워가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엔터테인먼트 소비를 비롯한 의료 소비등등이 늘어나는 등, 젊은 세대 못지 않은 소비 그룹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세대 노년층은 신개념의 Senior Community 라는 주거공간을 마련하여, 노년에 걸맞은 인생을 즐기며 여생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 모여서 느긋한 여행을 즐긴다거나, 취미활동을 하기도 하며, 많은 기업가들은 이러한 소비가능 인구를 대상으로 많은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앨버커키 Housing Authority공고사항입니다.

LIMITED INTAKE OF PRE-APPLICATIONS FOR PUBLIC HOUSING 3 BEDROOM UNITS ONLY

June 15, 2017 through July 15, 2017

The Albuquerque Housing Authority will accept online pre-applications for Public Housing 3 Bedroom Units Only from June 15, 2017 through July 15, 2017. Please note pre-applications will be accepted for public housing apartments only and not for Section 8 Housing Choice Vouchers.

Pre-Applications for the Section 8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Remain Restricted.

Pre-applications will be taken online only at www.abqha.org starting on June 15, 2017. Pre-Applications will no longer be taken in paper format. Written paper pre applications will not be accepted. All applicants must apply through www.abqha.org. AHA has two free computers available to complete your pre-application. These terminals are available by appointment only. Please call (505)-764-3953 to schedule an appointment. Walk-ins will not be accepted.

큰 기적 아니면 기막힌 우연?

김준호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장로



우리들이 몇년동안 염원하며 기도하던 새 피아노를 지난 5월 2일 구입하였습니다. 우선 여러 성도님들이 정성 드려 헌금을 별도로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헌금해 주신 명단을 보면서 “와 이분도 동참해 주셨구나” 하고 그런분들에게 조용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것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헌금은 각개인이 하나님 앞에 은밀히 드리는 특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이 황량한 광야에 자리를 잡고 신앙생활을 할수 있었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몇가지 이곳의 매력은 높고 높은 파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감탄하기도 했고 기막힌 저녁 노을로 온 알버커키를 예쁘게 물들게도 하시고 어떤 아침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하얀 눈으로 온 세상이 흰꽃 동산으로 만드시는 것을 보면서 여기가 바로 저희들이 원하는 가나안 복지가 아닌가 깨닫게 됩니다.

요근래에 새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끔 새신자 환영회를 가졌고 우리 KUMC의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목사님은 어느 분이었고 그다음은 -----등등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셋방살이를 하였고 어느교회에서 무슨연고로 쫓겨 나고-----등등 우리 교회가 좀 어려웠던 일들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 저는 이제 그런 고통스러웠던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신세타령을 하려는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와 같이 어려웠던 상황속에서도 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큰 복 아니면 작은 복이 많이 있었음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오수나 너서리 (Osuna Nursery) 고 안장환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현 교회 부지를 헌납해 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이 들뜨기 시작 했고 언젠가는 우리들 자신의 교회를 가질수 있다는 소망가운데 부풀은 마음을 잠 재울수가 없었습니다. 안선생님은 너서리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Landscape 비용을 자기가 감당하시고 화단정리를 자기가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건축사업을 시작했습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교회 건축비 43만 231불이 들어가는 4,500 sq ft건평의 교회 건물을 지었고 5년뒤에는 22만 9,874불이 소요된 2,000 sq ft건평의 교육관 증축을 하게 되어 도합 66만 105불 공사비가 들어간 교회건물을 완공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 지금다시 그때의 상황을 되돌아 보면 정말 이런 큰 사업을 우리들이 해 낼수 있었던 배경에는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때 그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내려 주셨다고 믿습니다. 한두푼 짜리 교회건물도 아니고 우리들이 할수 있다고 무턱대고 달려 들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동안 광야에서 헤매일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것 처럼 우리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셨고 아주 고통스러웠던 우리들에게 크고 담대한 힘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당시 송종남 목사님과 임원들과 교인 여러분들이 용단을 내려서 건축헌금에 시동을 걸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초대 목사님이셨던 정용치 목사님이 본인의 고향 교회인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큰 헌금을 해주셔서 Seed money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건축위원장은 이경화 장로님이 책임을 맡아서 여러가지 난제들을 잘 해결하셨고 저는 보조 역할을 하면서 Fund Raising 하는데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여러 성도님들 미국의 타지역과 한국 등으로 흩어져 나갔던 디아스포라들에게도 우리들의 상황을 알려서 도움을 청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그때 일을 회고하면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것이 아니라는것을 또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희교회가 완공되자마자 본당의 페인트도 잘 마르지 않았는데 때마침 로마 합창단을 초청해서 이 큰



사진 1 신축 성전에서 로마합창단 공연
기쁨을 온 알버커키 교민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원래 로마 합창단원들은 음악전공하는 분들로 구성되어서 미국여러도시들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단원들중 몇분이 저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해주었어요. 자기네들이 미국 여러교회에서 공연을 했는데 우리교회 처럼 좋은 음향효과를 듣지 못했다는것이였어요. 저는 부르는 합창단원들도 자기들의 찬양소리를 귀담아 듣는구나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음향효과를 생각하며 강대상 위 천정에 가장 반사율이 높다는 ceiling 재료를 약 24ft 정도 쓰고 싶었지만 비용때문에 12ft밖에 사용하지 못했지요. 우리 교회 본당의 천정을 Cathedral ceiling (CC) 이라고 하는데 Flat ceiling (FC)과 전혀 다른 음향효과를 만들어 줍니다. FC 은 천정에서의 반사파가 많이 분산되지 않아서 Standing wave 를 여러곳에 만들지만 CC 은 천정 반사파가 골고루 분산되어서 음향효과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교회 본당은 높이(H) 20ft, 넓이(W) 32ft, 길이(L) 48 ft 인데 비례를 보면 H:W:L = 20:32:48 = 1:1.6:2.4 가 됩니다. 이비율은 세계 유명한 Concert Hall의 내부 비율과 비슷합니다. 예로 Vienna Concert Hall은 H:W:L=57ft: 65ft :132 ft=1:1.4:2.32 로 저희교회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물론 그들의 음향판은 아주 좋은것으로 설치되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청중들이 Vienna Hall 에서 연주하는 것을 한번 들으면 마치 마약에 취한것 처럼 다른곳의 음악회에 안 가고 꼭 Vienna Hall 만 찾아 오기때문에 많은 관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제 말은 우리교회 본당의 비례가 어떻게 세계 적으로 유명한 Concert Hall 과 같은 비율로 본당이 건축 되었을까 좀 궁금 합니다. 또 Vienna Hall 의 잔향계수 (Reverberation Time,RT)는 500~1000 Hz에서 2.05 seconds 인데 우리 본당은 0.94 seconds 입니다. 잔향계수는 음악회관의 전체 부피와 상관이 있는데 Vienna Hall 의 부피가 약 500,000 cubic ft 면 최적잔향계수는 1.95초 인데 2.05 seconds 이므로 최적치에 아주 가깝고 우리 본당 부피가 30,000 cubic ft 가 되므로 최적치는 1.15~1.3초 사이가 됩니다. 실제 측정치는 0.94초 이므로 조금 낮은 값이지만 아주 좋다고 생각 됩니다.만약 강대상 위의 천정을 특수 재료로 6~ 12 ft 더 넓게 한다면 RT 가1.15 초 이상 정도 길게 할수 있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이잔향계수는 자리 수와 청중수와도 연관이 있으므로 저는 현 측정치 0.94 초 만으로도 몹시 만족합니다.

RT 가 너무 길면 웁웅 소리가 감쇠되지 않아서 Intelligibility 가 나빠집니다. 또 한 소프라노의 감쇠도는 베이스보다 크기때문에 배음 (harmonics) 이 많이 나오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의견이 있기는 한데 글썽요 차마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밖에도 standing wave 문제도 있지만 너무 골치



사진 2. 음악회에서. 왼쪽:안장환 안명순 내외

아시안페어의 채소전이 인기음식으로 뽐혀

앨버커키 더 매거진(Albuquerque The Magazine) 5월호의 2017년 Hot Plate Awards 특집기사에서 10여개의 인기음식을 소개했는데 김은진씨가 경영하는 아시안페어의 메뉴중 하나인 채소전이 선정됐다. 김은진씨와 잡지사 기자와의 인터뷰 기사도 함께 게재되었다. 채소전을 개발하게된 경위와 서울에서 요리학원을 다닌 얘기에서 오늘의 식당경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소개 되었다. 식당주소: 508 Central Ave. SW. 전화:766-9405 페이스북:www.facebook.com/AsianPearAbq



아플것 같아서 생략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생기의 구성체가 산소가 21% 질소가 78% Argon이 0.98% 그외에 다른 기체가 함유되어 있다는것을 그후에 어떤 과학자가 찾아 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지구상의 산소량이 21 % 가 아니고 100% 라면 이치구는 먼 옛날에 폭발해서 없어졌을것입니다. 이 생기의 구성체를 보면서도 우리들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세밀하게 생기도 아주 안전하게 만들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기막힌 비밀중의 하나이지요.이런 비밀들이 제가 아는것만도 몇개 더 있습니다. 제 point 는 우리들이 건축할때 천정 높이를 20' 넓이를 32' 길이를 48' 로 하라고 건축업자에게 안했습니다. 다만 교회 건평을 4500 sq.ft로 만들도록 권했습니다.그런데 기막힌 우연 일까요 아니면 조그마한 기적일까요? 제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이치수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중요한 사실은 우리교회 본당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성전이면서 또한 아주 좋은 음악회관이라는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새로 성가대에 들어 오신분들이 많고 경험 많으신 새 지휘자님도 오셨으며 새 피아노도 구입했으니 금년가을에 음악회를 계획해 보면 어떨지 제안해 보고싶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제4장



현용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원로목사

4:1-16 교회의 하나됨(일치)

“1 그러므로 주를 위하여 갇힌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 가시오 2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3 여러분을 함께 묶어주는 평화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오 4 몸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그와같이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그 부르심에 따르는 소망도 하나입니다. 5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입니다. 6 만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하여 일하시고 만물 안에 계십니다. 7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8 그래서 성경에 “그가 높은 곳으로 올라 가셨을 때에 사로잡은 자를 포로로 끌고 가셔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시68:19)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 그런데 그가 “올라 가셨다”는 말은 땅의 낮은 곳으로 먼저 내려 오셨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0 내려 오셨던 그분은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는 자기 자신으로 온 우주를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11 그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12 이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온전히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13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성숙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의 목표까지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4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린 아이가 아니므로 인간의 간교한 꾀수나 속임수로 꾸민 교활한 교훈들의 온갖 풍조에 흔들려 이리저리 밀려 다니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15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점에서 자라 머리되시는 그리스도에게 까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16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지체가 각각 그 분량에 따라 활동하는 대로 마디마다 공급을 받아 단단히 결합되고 서로 어울려 몸이 자라 사랑 안에서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4:1절의 “그러므로”란 단어는 1-3장의 원인으로부터 4-6장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고 1-3장의 하나님의 계시인 교리적 교훈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실천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권면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본 제4장은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됨을 통하여 교회의 일치가 보존되고 발전한다는 것을 권면하는 주제입니다. 앞서 제 2장 11-22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다른 두 사람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한 새사람을 만드셔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저들이 주님의 몸 안에서 하나되어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부름 받은 십자가 구속과 화평의 교리를 강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교회의 하나됨은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성취될 전 우주적 통일, 우주적 교회의 일치(엡1:10)를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되므로, 아무 공로도 아무 한 일도 없이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생활 수칙입니다. 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한마디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 가시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복중에 있기도 전에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우리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연이어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성도가 되게하신 이 선한 일을 생각한다면(엡1:5, 롬 8:29-30), 죽음도 투옥도 어떤 환란도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섬김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마음이며 바울의 마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입니다. 롬 11:29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라고 하였습니다. 실수나 착오가 전혀 있을 수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영원한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뿐이 아니고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양자됨, 받아들여짐, 구속, 용서, 지혜, 기쁨, 성령의 인치심, 영원한 생명, 은혜, 하늘의 시민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등등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지 알기만 한다면 어찌 그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바울이 받아 우리에게 전한 합당한 삶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그대로 마음 판에 새겨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엡2:10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미리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일군이요 청지기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충성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참음, 사랑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 주셨고 바울이 스스로 실천한 일이며, 교회를 하나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것을 더욱 결속시키는 것이 있는 데 에베소서에서는 ‘평화의 때는 줄’이고, 골로새서에서는 ‘사랑의 띠’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일치를 위한 마음으로 지상에 계실 때 예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평안 가운데 결속하여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한 결과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성장과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 각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모두가 평준화되거나 제도적으로 단일화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설교, 교육, 치유, 양육, 친교, 자선, 행정, 건축, 관리, 선교 등등 각 분야별로 할 일을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을 각 개인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발이 할 일이 있고 손이 할 일이 있고 눈, 귀, 코, 각 장기들이 각각 다른 일을 하지만 다 몸을 하나되게 하는 일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십부장, 오십부장, 백부장 또는 천부장 들을 세워 많은 백성들을 하나되게 했습니다.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등은 각각의 부장들과 같이 성도들을 대표하는 일군들입니다. 직분의 높고 낮음도 없고 귀하고 천한 것도 없습니다. 다양한 일들을 맡아 맡은 일에 충성함으로서 교회를 하나되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케 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 뿐이십니다.

4:17-32 이방인들 처럼 살지 말라

“17 이제 나는 주안에서 간곡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이상 이방사람들 처럼 살지마십시오. 그들은 허망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18 사고능력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생령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지하고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19 그들은 감각이 무디어지고 고삐풀린 상태에 처하여 온갖 종류의 부정을 탐욕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21 여러분은 예수안에 진리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진정 그분으로부터 들었고 그 분 안에서 배웠습니다. 22 또 여러분이 예전의 생활과 관련하여 기만의 정욕 가운데서 멸망하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23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져서 24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듣고 배웠습니다. 새사람은 하나님에 따라 정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25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각자가 이웃들로 더불어 진리를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26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마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내지 마시오! 27 악마에게 활동할 틈을 주지 마시오! 28 도둑이었던 사람은 더이상 훔치지 마시고, 오히려 수고하고 제 손으로 선을 행하여 궁핍한 자들을 도와 주시오. 29 여러분의 입에서 미워하는 말이 결코 나오지 않게 하시오. 오직 필요에 따라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도록 하시오. 30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근심하게 하지 마시오. 그 영에 의해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보증 받았습니다. 31 모든 독설과 분노와 고함소리와 욕설을 온갖 악의와 함께 버리시오. 32 오히려 서로 너그럽게 자비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회안에서 모든 지체들과 한 핏줄로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가족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시 들림 받을 때에도 함께 들림 받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교회의 하나됨을 굳게 지켜야 하며 교회 성장에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은 서로 진실해야 결속이 깨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6절에 예수님은 진리(진실)이라고 하였고, 또 16:13절에서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안에 한 지체로서 살아가는 우리도 당연히 진실해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러나 8:44절을 보면 사단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거짓 또는 거짓말은 신앙 공동체의 결속을 깨뜨리는 주범입니다. 거짓말로 부터 온갖 범죄가 발생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인 또는 이교도들과 확연히 다른 점이 있어야 합니다. 빛과 어두움이 분명히 다르듯이 기독교인들은 그들만의 독특성이 있어서 십자가를 걸고 다니지 않더라도,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곧 그들이 우리가 기독교인인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된 우리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였습니다(엡5:8-9).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주고 받는 것이 아니고 주기만 하는 것입니다. 주되 끝까지 주어야 합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끝까지 줄 수 있습니다. 진실이 없으면 형식이 되고 가식과 위선이 되어 생명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옛사람 또는 이방인들은 진실한 사랑을 알지 못하여 욕망과 소유욕을 사랑으로 착각하며 살아 갑니다. 4:32절은 “서로 너그럽고 인자하게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라고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벤전 1:22절은 “여러분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진실함을 다하여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새사람의 새생활 가운데 평안의 때는 줄과 사랑의 띠로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굳게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원형 야외극장 유적

영원한 안식일(주일)

말씀: 레위기 23:3

“옛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쉼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와 안식일이니라”

이명길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원로목사



요사이 우리 교회 속회에서는 레위기를 공부하며 은혜를 받는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녀 된 자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거룩한 예배를 받고자 하는 것이 주제다. 그래서 죄인 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잘 설명하려고 제사법과 필요한 삶의 방법을 세밀하게 기록해 주셨다. 죄인 된 인간이 죄 문제 해결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도록 하셨다.

십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주신 것도 거룩한 삶 때문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후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소개하신 “치료의 하나님(여호와 라파)”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셨다. 인간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되는데로 먹고 마시고 욕망대로 살면 결국 영혼도 신체도 병들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출애굽기 15:26). 율례와 법도를 정하신 “치료의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 동안 먹이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시면서 안식일 제도를 만드셨다. 이 안식일은 거룩한 삶의 중심이요 순종의 잣대로 제도화시켰다. 성수주일은 신앙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다.

안식일 문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위기 때마다 개혁을 거듭했고 이스라엘 부흥 역사도 안식일 개혁이 주제였다(느헤미야 10:31). 특히 예수님의 3년 사역 유대교 바리새인들과 많은 안식일 논쟁을 그 중요성 때문이었다. 심지어 종교 개혁 이후 영국 연약 교회에서는 주일 오후 안식일 범법자들을 색출 체포하러 다녔던 기록까지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주일 성수가 당연한 교회의 특색이었다. “언덕 위 도시(City on the Hill)”를 꿈꾸며 미국 신대륙에 건너와 식민지를 개척하고 나라를 세운 영국의 청교도들은 18세기 초 뉴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일어난 영적 부흥을 기초하여 미국이라는 국가를 건설하고 세계 선교에 열정을 품었다. 이들의 신앙을 받아들인 한국의 초대 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가 거룩의 중심이었다. 주일에 웃고름이 떨어져도 기워 입지 않았고 외식은 커녕 필요한 물품을 사지 않았다. 이런 주일 성수의 전통이 언제부터인지 사라지기 시작하여 이제는 교회에서조차 안식일 문제는 거론하기도 거북한 주제가 되어버렸다. 심지어 교회 직분자들까지도 주일날 상점을 열고 일을 하는데 대한 아무런 죄의식조차 느끼지 않게 되었다.

필자가 이민 온 1970년대만 해도 뉴욕과 뉴저지 주에는 Blue Law(주일 날 모든 업체가 문을 닫도록 한 법)가 살아 있어서 주일이면 사람들이 교회 가는 아름다운 풍습을 볼 수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백화점, 상점들이 문을 열기 시작한 후 법은 폐기되고 오히려 더 장사가 잘 되는 주일날 문 여는 것이 상식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돈이 더 위세가 된 증거이다.

교인들도 주일 예배 후 골프나 사사로운 오락을 즐기는 것이 일반이 되어버렸다. 주말이면 교회보다 차를 몰고 여행을 가는 것이 일상화되어 교회가 텅텅 비어버렸다. 이것이 서구 문명이 저무는 마지막 모습이다. 영원한 안식일 제도가 다시 살아나야 할 당위성도 여기에 있다.

레위기를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가 왜 안식일 문제를 다시 보아야 하는가? 안식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은 안식일을 왜 만들어 주셨으며 정말 안식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본 뜻은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토요일 아닌 일요일을 주일이요 영원한 안식일로 지켜야 하며 어떻게 지켜야 성수주일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새로운 성수주일 운동이 과연 필요한 것일까?

1. 영원한 순종의 잣대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첫째는 안식일은 율법의 순종의 잣대로 주신 까닭이며 둘째는 안식일을 영원한 제도로 주셨기 때문이다.

첫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순종의 잣대로 시험하시기 위해 주셨다.

출애굽기 15:27-22을 보면 치료의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신 배경이 잘 나타나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애굽의 군대에서 구원한 하나님을 춤을 추며 찬양하였다. 그 일 후 3일밖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3일 동안 뜨거운 사막길을 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은 호수를 만났으니 물이 너무도 써서 마실 수 없었다. 하나님은

마라에서 쓴 물을 만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계명을 정하셨다. 저들에게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기에 취하신 일이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하나님은 배고픈 그들을 만나를 내려 먹이시며 즉시 안식일 훈련을 시작하셨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계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출애굽기 15:25-26).”

3일 전 저들은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는 너무나 큰 기적을 체험했었다. 너무도 위대한 기적이요 구원이며 해방이었다. 그런데 목도 마르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 길을 3일 걸었다. 그들의 불평은 어쩌면 당연하게 보인다. 그러나 3일 전 일을 그들은 그렇게도 빨리 잊을 수밖에 없이 절박했던 것일까? 사실 그들은 이 사건 후 바로 종로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 12이 있는 엘림을 바로 만난다. 하나님이 그들을 마라로 이끄신 것이다.

은혜를 3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에게 만나를 주셔서 6일 동안 거두고 7일째인 안식일은 전날 거둔 2일분의 만나를 가족과 함께 텐트에 머물며 먹게 하는 훈련을 시작하신 것이다. 왜냐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6일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필요하였기 때문이고 쉼의 필요 이상으로 거룩한 삶을 위해 안식일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법도를 정하셨고 그 구체적인 안식 훈련이 출애굽기 16장의 기록이다. 순종의 리트마스 시험지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은 종종 이후의 안식일에 대한 말씀에 나타난다. 레위기 19:3에도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 중에 4계명까지의 계명 중 4계명과 6-10계명 중 첫 계명인 6계명 부모 공경 두 계명을 언급하신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계명 중에 대표적 성격인 셈이다.

에스겔 20:12을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장을 삼았노라.” 안식일은 택한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표징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하는 표징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었다.

안식일의 중요성은 범법자들에 대한 처벌에서도 나타났다. 출애굽기 35:2에 보면 “옛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라고 했다. 구약시대에는 안식일 범법자들을 사형시키기도 했다. 그만큼 중요한 법이었다. 왜냐면 안식일은 바로 순종의 잣대였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택한 백성들의 의무인데 그 표징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사형을 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로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점이다.

어떤 분은 신약 시대는 이미 안식일 제도가 끝났다고 본다. 안식일 제도를 신약 시대에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상이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한다. 안식년과 희년 제도는 왜 언급을 안 하고 기타 많은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은 지금 예배 시 적용되지 않는데 왜 안식일만 문제를 삼느냐고 질문하는 것이다. 어떤 분은 십일조도 구약의 제도이며 신약 시대에는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필자는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면 안식일이나 십일조 제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난 제사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장차 이루실 온 세상 구원의 필수적인 예표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안식일 제도는 영원한 제도로 주셨다. 이사야 56:1-6을 안식일은 영원한 제도이며 이미 새 언약 시대에도 계속되어야 하는 제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본다. 특히 안식일을 지켜서 여호와와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안식일의 원리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받은 새 언약 시대에도 더럽히지 말고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다. 안식일의 원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순종의 잣대이며 믿음의 바로미터이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영원한 안식일로 정해 주셨다(출애굽기 16-17).

2. 안식일의 의의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정해주신 근본 뜻은 어떤 것일까?

첫째 안식일은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의 열망과 참여를 위한 것이다.

먼저 10계명중 제 4 계명을 살펴보자. 출애굽기 20:8-11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옛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안식일의 배경이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연과 인간을 만드시고 제 7일에 쉬셨다. 그런데 7일은 단순히 일을 마친 것만이 아니라 인간과 만물을 복되게 하셨다. 창조된 모든 만물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신 것이다. 그런데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 그 평안의 복을 파괴시켜버린다. 인간의 고통과 불행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은 그 파괴된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 안식일을 정하신 것이다. 안식일은 아담이 파괴해버린 축복의

삶을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실 것을 희망하고 만든 제도이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도록 하며 성회의 날로 정하였다. 함께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런 의도는 안식년과 희년에도 보여진다. 출애굽기 23:11과 25:3-7에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안식년에는 첫째 땅을 쉬게 하고 둘째 농경지에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짐승들이 먹게 하고 셋째 빗을 탕감해주어야 하며(안식년을 면제년이라 불렀음(신명기 15:1-3). 넷째 빗 때문에 종이 된 동족을 풀어주어야 했다.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가 얹어맨 자들을 풀어주는 것이 안식의 정신이었다. 그것은 장차 메시아를 통해 얹어맨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구원을 영망하고 미리 실현하며 참여케 한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년을 실현할 수 없었다. 먹고 살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안 지킨 해를 계산해 70년 포로 생활하도록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셨다.

안식년에 이어 희년도 같은 의미다. 희년은 7번째 안식년 곧 49년째 되는 해 7월(이스라엘의 신앙력으로) 1일 즉 나팔절부터 시작된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달력이 있다. 하나는 농력으로 지금의 9월쯤에 시작되는 달력으로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역의 다른 종족도 같이 썼다. 겨울에 비가 오기 때문에 가을에 파종이 필요해서 지금의 9월에 시작된다. 두 번째 달력이 신앙력이다. 출애굽 후 유월절이 든 달을 1월로 시작된다. 그래서 희년은 신앙력으로 안식년인 그 해 7월 즉 농력으로 1월1일 새해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희년이 되면 모든 빚을 탕감해주어야 하며 토지를 샀어도 무조건 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종족에 상관 없이 노예로 쓰던 자들은 풀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토지도 희년이 몇년 남았느냐에 따라 값을 정하라고 율법에 지시한다. 희년을 통해서 정말 속박에서 해방을 누리며 또한 자유케 해주어야 한다. 이것은 장차 주실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희년을 희망하며 안식일, 안식년에 부분적으로 실현하고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도록 하신 의도임을 알 수 있다. 안식은 곧 축복이며 자유의 날인 것이다. 이점이 곧 안식일의 의의였다. 다시 말해서 불안한 인생 살며 고달픈 죄인들이 장차 메시아를 통해 주실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참여하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도록 정하신 것이 안식일 제정의 뜻이었다.

둘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18에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희년 선포로

말씀하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희년 곧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고 오셨다고 이사야 선지서를 인용하며 말씀하셨다. 구원 사역은 은혜의 해에 만민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희년 선포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남의 밭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남의 밭에 곡식을 훔쳐먹는 것을 시비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에 배고픈 사람이 지나가면서 남의 밭에 익은 곡식이라도 훔쳐 먹는 것이 허락되었다. 일하지 말아야 할 안식일에 훔쳐먹는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는 시비다.

마가복음 2:27-28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니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일은 허용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다. 인자나 사람이나 같은 단어이다. 안식일은 인간 회복을 위하여 만들어주신 것이며 인간이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며 바로 그 일에 인자가 주인이라는 말씀이다. 인본주의자들의 뜻이 아니다.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안식하게 하고 고통을 제거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이 곧 안식일에 할 일이라는 말씀이며 바로 그 일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하신다. 이미 구약에도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고 안식일에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 살렸고 생명을 구하는 일은 했었다. 안식일은 구원의 날, 생명의 날, 해방의 날이므로 예수님은 제자들 편을 들고 병자를 고치고 생명을 구하신 것이다.

셋째 안식일은 성회의 날이다.

레위기 23:3에 “안식일이니 성회라”고 하셨다. 안식일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특히 천지 창조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잃어버린 안식을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 예배드리며 천지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와 세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전도하며 가난한 자 눌린 자들을 돕는 날이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일을 안식일을 정하여 영원한 회복의 날을 희망하며 그 일에 참여시키고 영혼과 육체를 쉬게 하신 것이다.

넷째 안식일은 가족의 날이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안식일 훈련하실 때 철저히 가족 중심으로 하셨다. 옛새 동안 열심히 거두되 6일째 날은 2일분을 거두어 안식일은 온 가족이 함께 먹도록 하셨다. 후에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가족 뿐만 아니라 부리는 종들까지도 심지어 가족까지도 쉬도록 하셨다.

안식일에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시간을 내어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선교와 전도의 일을 나누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구제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에 가족을 제쳐놓고 개인적인 오락을 즐기는 것을 금했다. 주일 에 예배드려고 혼자 골프 치러 가며 성수주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주일은 가족의 날이다. 일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3. 신약 시대의 안식일 주일

그런데 구약에 7일 째 지키던 안식일을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가? 토요일 안식을 고집하는 어떤 교단의 말이 더 옳은 것은 아닌가?

첫째 신약 시대의 안식일은 주일이다.

예수님은 구세주 메시아로 오셔서 안식일의 원래의 뜻인 구원을 통한 영원한 안식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한 안식 곧 희년을 시작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은 부활의 날인 안식일 다음 날 지금의 주일에 성회로 모여서 성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구제를 시작한 것이다. 지금의 주일은 바로 영원한 희년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 때에 완전하게 이루실 그 해방의 날을 기다리면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교제하고 전도하며 구제하는 것이다. 주일은 십자가와 부활로 안식일의 뜻을 성취한 날이다.

어떤 교단은 지금도 토요일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원한 안식일인데 왜 바꾸냐는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주장이다. 이미 예수님 부활 후 사도들이 안식 후 첫날 모임을 시작했고 매주 첫날에 모임을 가진 기록을 볼 수 있다.(사도행전 20:7, 고전 16:2). 예수님 부활 승천 후 부활의 날을 안식의 성취의 날로 지켜 안식일을 계속한 것이다. 굳이 토요일로 지키려면 안식년도 희년도 또 이스라엘의 절기인 수장절, 장막절은 왜 안 지키는가? 안식일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안식의 완성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둘째 기독교인은 안식일의 근본 뜻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안식일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의견 충돌을 하신 것은 당시 유대교는 안식일의 근본 뜻은 외면한 채 일을 하지 말라는 믿음보다 행위에 집착하는 잘못을 지적하신 것이다. 안식일을 위해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인가를 정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정하신 근본 뜻, 곧 잃어버린 평안과 행복한 삶의 회복을 위해 생명을 살리는 일,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구제하며 아픈 자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며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날을

기다리는 일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주일은 믿지 않는 자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원래 서구 사회에서는 안식일 제도가 모든 사람의 일상 생활에 굳혀 있었다. 미국도 얼마 전까지 주일에 일하지 않는 법을 가지고 있었다. 쉬는 날은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갔고 신앙 생활을 안 해도 주말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무섭도록 자본주의와 물질적 세속주의의 범람으로 사람들은 쾌락을 일삼고 주말은 개인적 향락으로 소일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가정들이 파괴되고 전통적인 결혼이 무너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은 땅에 떨어져 테러를 일삼는 극단적 종교 집단들도 서양인들의 도덕적 타락을 이유 삼아 자기들의 악행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점점 교회의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이런 때에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도 점점 주일 성수의 아름다운 삶에서 멀어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모든 것을 종교로 취급하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 주말이면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육체적 쾌락으로 소일하는 경향을 본다. 참으로 위험한 지경이다.

필자는 기독교의 안식일 제도가 결코 종교적인 것으로만 지킬 것이 아니라 이미 공산주의자들까지도 지키는 쉬는 제도를 일반화시켜서 대화 없는 가족을 회복시키고 스트레스와 속박으로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에게 안식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에 지금이라도 본을 보이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주일성수 운동을 가족 회복과 사회 안녕 질서 회복으로 열정을 갖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역진할 때가 왔다고 보는 것이다. 이미 얻어진 안식일 제도를 왜 기독교인들 스스로 망가뜨리고 마는가? 안식일이 회복되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아울러 지상에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영원한 안식은 보다 빨리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결 론

안식일 제도는 창조 시 주어진 평화와 행복을 무너뜨린 인간에게 회복된 삶과 행복을 되찾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제도이다. 신, 불신자를 막론하고 이미 세상 사람들조차 누려왔던 제도이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스스로 자본주의 속성에 빠져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의 늪에 깊이 빠짐으로 복된 가정들이 무너지고 사회는 점점 악화되며 사회악은 세상을 덮고 있으며 이를 선도해야 할 교회들이 텅텅 비는 현실을 접하게 되었다. 누구의 탓을 하기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 스스로 회개하고 개혁해야 할 과제이다. 주님 주신 꿈을 가지고 영원한 안식의 그 날을 열망하며 먼저 안식일 운동부터 시작했으면 한다.

광고에 대한 알림

광야의 소리는 기고자 여러분과 교우 여러분의 자원 봉사로 만들어지며 인쇄 비용(250부/월)은 광고주께서 베푸시는 후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통해서 광야의 소리를 후원해 주실분은 voiceofnm@gmail.com 또는 신옥주 권사 (275-9021)에게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교회안내는 Public Domain에서 수집된 자료입니다.
틀린점이 발견되면 편집부로 E-mail 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류종재 목사 (505) 385-6545
주일예배 시간: 오후 1:30 pm
영어예배 시간: 오후 12:00 p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웹사이트: home.kcmusa.org/disciples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김재태 목사(972)-822-1239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주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 10:30am
주소: 200 E. Boutz rad, Las Cruces, NM88005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김석훈 목사 (626)272-1042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e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45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11:00 am (Sunday)
수요예배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5:30 am (Tue-Fri) 6:00 am (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www.facebook.com/kumcabq/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신동완 파우스티노 사목회장
장재준 안드레아 총무/기획부장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금요기도회(금,저녁)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클로비스 한인 순복음교회

이 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 12:00pm 금요예배: 7:30pm
새벽기도회: 6:00am(월-금)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 12:00 am (한국어) 1:00 pm (Indian 영어)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등록을 원하시면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무료.

알버커키 Albuquerque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Kelly Liquors #10 4312 Coors SW (505) 877-2777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A-1 한식 Cafe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	Kelly Liquors #14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6 (505-839-8697)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275- 9021)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주택용자 Loan Officer
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Yummi Hous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부동산 Realtors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김미경 Mikyong Kim Bank of Albuq. Mortgage 3900 Vassar Dr. NE (Office 505-855-0586) (cell 505-379-2944) mkim@bokf.com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건축/페인트 Painting	김영신 Yong Shin Kim: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	Hair & Co(황경희) 5901 Wyoming Blvd., NE (505-797-8087)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치과 Dental Clinic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공인회계사 CPA	세탁소 Dry Cleaners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Asian Pear 508 Central SW, ABQ (505)766-9405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리커스토어 Liquors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Plance Hair Salon(Tina) 4300 Ridgecrest Dr NW (505-907-9229)	태권도 TaeKwonDo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 899-0095)	Casa Liquor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Dynamic taekwondo acad- emy5850 Eubank blvd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자동차정비 Auto Repair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Jasmine Thai & Sushi House 4320 The 25 Way, NE Suite 300 (505-345-0960)	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	의류 Clothes	The Garage 자동차 정비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thegaragenm.com	한의원 Acupuncture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교회 Church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 296-8568)	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 9400)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Dr. James D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6 87113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505) 873-4477	Dot Clothing Co 9601 Sage Rd. SW ABQ 87121 (505) 831-8812	갈릴리장로교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BQ, NM87112	화랑 Gallery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Fashion USA 201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55-0878)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Park Fine Art Gallery (박영숙): 323 Romero St. Suite 6 Old Town, Albuquerque NM87104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등록을 원하시면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무료.

(505-764-1900)

하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사진관 Photo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중재서비스

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단요가 Dahn Yoga

알버키505-797-2211
커튼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아스트마운트505-286-3535
www.dahnyoga.com

라스베가스 Las Vegas

치과 Dentist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0098)

교회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780 Camino Del Rex, Las Cruces, NM 88001
전화번호(505)-269-0691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성내츄럴: Los Alamos (505-662-9681)

교회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626)272 -1042)

리오란초 Rio Rancho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

버나리요/벨렌/ 보스키팜 /로스루나스 Bernalillo/Belen/Bosque Farms/Los Lunas

식당 Chinese Restaurant

Bamboo Express
143 Highway 314 SW Los Lunas NM87031 (505) 866 6888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

Kelly Liquors
300 N Main st. Belen, NM87002 (505) 864-2242

Kelly Liquors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87002 (505) 916-5656

산타페 Santa Fe

손톱미용 Nails

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베이커리 Bakery

베이커리 B&B(영성권)
38 Burro Alley Santa Fe, NM87501 (213)369-1604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1
3875 Cerrillos Rd Santa Fe, NM887507 (505) 471-2244

Kelly Liquors #2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887507 (505) 471-3960

Kelly Liquors #3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887507 (505) 471-3206

교회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87501 (626)272-1042

클로비스 Clovis

교회 Church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

백화점 Mart

T-Mart
120 W 21st St. Clovis, NM 88101 (575)218-3764

식당 Restaurant

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

식품 Korean Grocery

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

화밍톤 Farmington

교회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

상점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광야의 소리는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voiceofnm
voiceofnm.kumcabq.com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2017년 7/8월호

발행일: 2017.7.1

발행인: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위원장: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 알버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voiceofnm@gmail.com

(505)341-0205

The Garage AUTO REPAIR

30년 경험의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2년 연속 앨버커키저널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
문의사항 (505)352-5152



마이크 조

근무시간: M-F 7:00am-6:00pm (토,일 휴무)
웹사이트: <http://thegaragenm.com>
주소: 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

Sushi Hama

Japanese Restaurant & Sushi Bar
5:00-8:00 P.M. Daily

식당비즈니스를 505-293-6055
매매합니다 2918 Eubank NE
Albuquerque, NM 87111
(Corner of Eubank and Candalaria)

Yummi House
雅緻苑
Chinese Cuisine(중화요리 전문식당)

Mon-Sun.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 (505) 271-8700

추천 메뉴
삼선짜장면 / 삼선짬뽕
해물탕면 / 다섯가지 냉채
판풍기,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탕수우육 / 양장피 잡채

HUONG THAO
베트남 식당
Vietnamese Cuisine

Lunch & Dinner Beer & Wine
Tues-Sat 11:00am-9:00pm
Sun 11:00am-8:30pm

1018 B Juan Tabo NE
Albuq., NM 87112 (505)292-8222



성심을 다하는
부동산 전문가
그레이스 김

Grace Kim
김 천
Associate Broker/Realtor



주택
토지
사업체

R1 REALTYONE
OF NEW MEXICO
THE FUTURE OF REAL ESTATE

전화: c 206.765.0836 o 505.883.9400
Email: kgrace7@msn.com
9674-3 Eagle Ranch Rd NW Albuquerque, NM87114 Website: www.realty1newmexico.com

metroPCS

앨버커키 지역
MetroPCS 딜러로 모십니다



MeetroPCS는 미국내 최고의 가격 경쟁력과 폰 라인업을 갖춘 Pre-Pay Wireless회사입니다. Cricket와 비슷한 구조이나 초 고속 무제한 T-Mobile Network로 시장을 석권합니다. 달라스에서는 10년전부터 이미 많은 한인 분들이 성공적으로 가게를 운영하시고 전체 달라스 물량의 60%를 한인들이 소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인분들이 새로운 Business에 참여하셔서 메트로 패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Dealer: 직접 새로운 Location을 찾으셔서 문의해주시거나 현재 운영중인 가게를 인수하셔도 됩니다.
연락처: JAMIE KIM Tel: 505-401-9185 Email: jamie.kim@tomorrowtelecom.com

